

'3퇴'와 평안

제 313기 2018년 3월 6일

2018년 3월 1일까지 해외 대기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중공의 당, 단, 대 조직 탈퇴를 성명한 인원:

2억 9,826만 명

미국 로스앤젤레스 신년 축제에서 파룬궁 수련생이 진상을 알리다

2018년 2월 3일과 4일, 매년 개최되는 중국 신년 축제가 로스앤젤레스 몬테레이 공원에서 개최됐다. 이곳에 파룬궁 소개 부스를 설치한 로스앤젤레스 수련생들은 파룬궁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파룬궁에 대한 중공의 박해를 폭로했다. 많은 사람은 파룬궁에 대해 지지, 이해, 감탄을 표시하고, 중공의 파룬궁 탄압을 비난했다. 대륙에서 온 중국인 150여 명은 진상을 알고 기꺼이 '3퇴(퇴당, 퇴단, 퇴대)' 성명을 했으며, 중공에 대한 실망과 반감을 감추지 않았다.

상하이에서 태어나 올해 80세가 된 탕 씨는 중공의 역대 살인 운동을 직접 겪었고, 중공의 사악한 정도를 깊이 알고 있었다. 그녀가 말했다. “지주 살해부터 3반, 5반, 문화대혁명, 6·4 대학생 살해, 파룬궁 박해 등등까지 중공은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9평 공산당’은 우리를 철저히 깨닫게 했어요. 중공은 그야말로 악랄한 세력이에요.” 탕 씨는 파룬궁 수련생의 선량함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녀가 말했다. “수련생들이 수많은 해를 견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정한 진상을 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자고로 사된 것은 바른 것을 누를 수 없어요. 나는 하늘이 중공을 멸할 것이라 믿어요.”

대륙에서 온 30세 가량의 젊은이는 흥분한 표정으로 곧장 진열대로 오더니 다급하게 말했다. “여러분을 찾고 있었어요. 공산당을



파룬궁 수련생이 설치한 진상 알림 부스에 수많은 사람이 찾아와 진상을 확인하고 있다.

탈퇴하고 싶어요. 공산당은 너무나 나빠요.” 수련생은 즉시 그의 ‘3퇴’ 성명을 도와주었고, 젊은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떠나갔다.

내가 시어머니를 부양하는 것을 알고 관리 친구가 ‘3퇴’하다

[명혜망] 내가 파룬궁 수련의 길로 들어선 지는 이미 20여 년이 되었다. 파룬궁 수련 전에 나는 백혈병 말기 환자였으나, 수련 후에 병이 나아 건강해졌고 도덕도 승화되었다.

먼저 우리 시어머니를 소개하자면 약 90세인데, 아주 괴팍하고 제멋대로인데다 아무에게나 함부로 욕을 하는 사람이었다. 아들조차도 어머니를 ‘철이 없고’ 냉혈이라고 말했으니 가히 짐작이 될 정도다. 우리 친척, 친구, 동료들은 모두 시어머니를 아는데, 하나같이 언짢아하며 불평을 했다. 남편은 늘 짜증을 내며 말했다. “사람들이 모두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라 말하는데, 나는 어머니의 사랑이 뭔지를 모른다…….”

그러나 40년 동안 시어머니의 의료비는 모두 우리가 부담했고(큰 병, 작은 병을 막론하고), 부양비도 모두 우리가 부담했다. 나는 퇴직 후 파룬궁을 수련하면서 시어머니에게 함께 살자고 했다. 시어머니는 오지 않았고, 원래 가지고 있던 집과 땅을 농촌에 살던 아들에게 주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돈을 요구해 집을 짓고 땅을 사더니 집이 완성되자 팔아서 돈을 딸에게 주고 딸네 집으로 들어갔다. 나중에 시어머니가 늙어 보살핌이 필요해지자 아들과 딸은 모두 반신불수를 두려워해 모시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어머니를 밖으로 쫓아냈고, 일찍 돌아가시기를 바랐다. 오빠의 땅을 탐낸 딸은 아들을 고

소하라며 어머니를 꼬드겼는데, 고소를 하지 않자 크게 소란을 피우며 온갖 욕을 했다. 시어머니는 시골의 아들 집으로 갔지만, 상황이 더욱 나빠졌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이전에 팔아버린 집을 달라고 했고, 집이 없으면 땅이나 돈을 달라고 했다. 시누이와 올케는 그녀를 만나면 장사꾼이 흥정을 하듯이 대했고, 그녀는 궁지에 몰려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나는 시어머니를 모셔온 후에 내가 파룬궁 제자임을 알려 드리고, 반드시 선하게 대할 것이니 안심하시라고 말했다! 그녀는 아주 감동스러워했다. 나는 시어머니에게 맛있는 음식을 드렸고, 시어머니도 사부님의 설법 녹음을 듣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서서히 알게 되었다. 파룬궁은 나를 변화시켰고 시어머니와 가족도 변화시켰다. 남편은 간부인데, 수많은 사당의 서기와 우두머리를 알고 있다. 내가 시어머니를 선하게 대한 일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커다란 진동을 일으켰다.

어느 날, 나는 길에서 잘 아는 자매의 오빠를 만났는데, 현지의 기업가이며 사당 서기를 겸하는 그는 나와 시어머니 사이의 일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가 말했다. “듣기로는 내가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했었는데, 그게 정말이야?” 나는 우리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사람을 선하게 대하라

고 하셨는데, 하물며 가족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내가 말했다. “작은 오빠. (몇 십 년 동안 그를 이렇게 불렀다) 빨리 탈당하세요.” 그가 말했다. “네 말대로 할게. 좋아! 네가 하라는 대로 할게. 나는 너한테 감동했어!”

남편의 사촌 형은 내가 시어머니를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나를 찾아와 파룬궁 책을 보여 달라고 했다. 내가 ‘3퇴(퇴당, 퇴단, 퇴대)’하여 평안을 보전하라고 하니 그는 즉시 ‘3퇴’에 동의했고, 나중에는 아내와 자식을 데려와 함께 파룬궁을 수련했다.

남편의 동창 한 명은 우리 이웃에 살았는데, 그도 기관의 작은 간부였다. 한번은 남편과 가까운 동창들이 부부동반으로 회식을 했는데, 나도 참석했다. 그들은 20년 동안 나의 몸이 이렇게 건강한 것과 파룬궁의 초상함을 알고 있었다. 한 테이블에 있던 사람이 모두 ‘3퇴’를 했지만, 그 이웃 동창은 하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저녁 식사 후에 남편과 함께 나갔다가 길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남편을 보더니 반색을 하며 말했다. “자네 어머니가 자네 집으로 오셨다니, 정말 잘 됐어!” 남편이 말했다. “맞아! 정말 잘 됐지!” 내가 그에게 말했다. “오빠, 당에서 탈퇴하세요. 정말 오빠를 위해서예요.” 그는 “좋아. 탈퇴할게! 탈퇴할게!”라고 말하더니 큰 소리로 외쳤다. “파룬따파 하오(法輪大法好)!” 나는 그가 잘된 것이 정말 기뻐!

['3퇴'하면 복이 있다] 아버지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다

글/ 대륙 북방 주민

[명혜망] 나는 이 씨이며, 올해(2017년) 48세로, 촌의 지부서기다. 파룬궁이 박해를 당할 때 나도 거짓말을 믿었고 파룬궁을 적대시했다. 마을의 파룬궁 수련생들이 여러 차례 나에게 진상을 알렸는데, 나는 2009년이 되어서야 거부감 없이 주동적으로 파룬궁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나는 파룬궁 수련생이 준 자료들을 읽고 파룬궁이 불법(佛法) 수련이라는 것과, 헌법에 신앙의 자유가 명기되어 있고, 파룬궁 박해가 명백한 현행 중국의 헌법 위반임을 알았다. 특히 장쩌민과 중공의 잔인한 파룬궁 박해 수단은 나를 놀라게 했다. 중공이야말로 사교다! 또한 파룬따파(파룬궁) 수련생의 진상 알리기가 사람을 구하는 것임을 알았다. 나는 파룬따파가 좋은 것을 믿고 망설임 없이 '3퇴'했다. 그때부터 우리 집은 모든 일이 순조로웠다. 농작물은 연속해서 풍작을 이루었고 수입이 늘었으며 무엇이든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졌다. 수중에 여윌돈이 생겨 우리는 현 소재지에 중간 규모의 술집을 열었다. 식당은 부모님과 아내가 관리했는데, 사업이 아주 번창했고, 나는 일이 없을 때면 늘 오토바이를 타고 둘러보러 갔다.

2017년 5월 7일 저녁 9시쯤 손님들이 모두 가고 나서 아버지가 테이블 위의 그릇과 젓가락 치우는 것을 돕다가 갑자기 바닥에

쓰러졌다. 내가 오토바이를 타고 황급히 식당에 도착하니 아버지는 입에 핏줄기가 걸린 채 눈을 감고 있었고, 가슴은 너무나도 느리게 부풀었다 가라앉고 있었다. 나는 가슴이 철렁해 아버지 옆으로 뛰어가 소리쳤다. "아버지,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러나 아무리 소리쳐도 아버지는 눈을 뜨지 않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의사는 급히 수액, 주사 등 여러 가지 응급조치를 진행했다. 하지만 어떤 치료를 해도 아버지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의사가 우리에게 말했다.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후사를 준비하세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이 발생하니 온 가족의 슬픔은 형용할 방법이 없었다!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12일 동안 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인사불성이었다. 우리는 병원 측 제안에 따라 아버지를 집으로 데려올 수밖에 없었다. 뼈저린 후회를 하던 중에 나는 큰 난이 왔을 때 목숨을 구하는 방법을 파룬따파 자료에서 읽은 것이 생각나 눈물을 흘리며 큰 소리로 말했다. "파룬따파 하오(法輪大法好)! 찼싼런 하오(真善忍好)! 사부님, 우리 아버지를 구해주세요……." 내가 반복해서 외치자 가족들도 함께 성심성의로 한 번 또 한 번 외쳤다. "파룬따파 하오! 찼싼런 하오! 사부님, 우리 아버지를 구해주세요." 우리가 집으로 돌아온 지 3일째 되는

날 오후, 아버지는 눈을 떠서 우리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슬퍼하지 마. 난 괜찮아. 안 죽었어." 우리는 모두 놀라움과 기쁨에 사로잡혀 아버지 옆으로 몰려들었다.

아버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검은 옷 입은 사람 두 명이 나를 쇠사슬로 묶고 잡아당겼어. 그들은 손에 채찍 같은 것을 들고 나를 때리면서 빨리 가라고 재촉했지. 나를 저승으로 데려가려는 것 같았어. 내가 안 가니까 그들은 더 다그치면서 마구잡이로 나를 때렸어. 앞에는 캄캄하고 커다란 동굴이 있었지. 두 사람이 나를 동굴 입구로 끌고 가서 아래로 막 내려 보내려는데, 갑자기 내 눈 앞에 한 줄기 빛이 보이더니 앞에 한 사람이 서있는 것이 보였어. 그는 밝고 커다란 손을 휘둘러 검은 옷 입은 두 사람을 놀라 달아나게 했지. 곧이어 나는 깨어났어……."

나는 리홍쯔 대사님께서 아버지를 구해주시고 아버지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았다. 나와 온 가족은 사부님이 너무나 고마웠다! 사부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구해주신 기적은 우리 고향에서 사면팔방으로 전해졌다. 나는 사람들을 만나면 파룬따파가 아버지를 구했다고 말한다. 나는 마음속으로부터 사부님께 감사드리고 파룬궁에 감사드립니다! 세인들도 하루 빨리 파룬궁의 진상을 알고, "파룬따파 하오"를 기억하고, '3퇴'하여 평안을 보전하기를 기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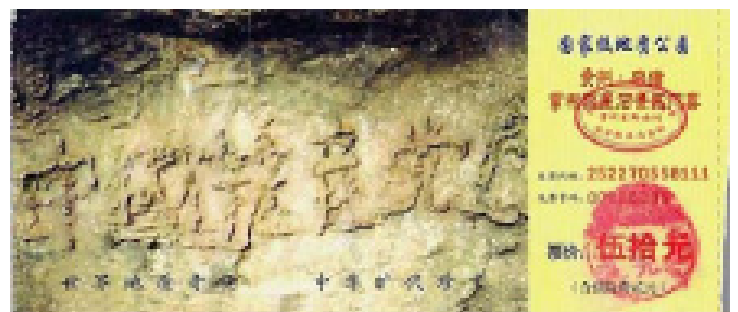
삼십육계 '탈퇴'가 상책

[명혜망] 오늘날의 사회는 중공의 투쟁철학 통치하에 엄연한 하나의 전쟁터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 분주한 것을 막론하고 언제나 명리정(名利情)을 다투는데, 마치 모든 사람이 온갖 재주를 발휘해 서로 혈투는 수단을 차례로 내놓는 것 같다.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없는 극심한 혼란과 온갖 재난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진정한 평안을 얻으며 진정하게 즐거운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는 아마 상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막연하게 앞으로 가기보다는 깊이 생각하고 신중히 고르는 것이 나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아무도 믿지 않고 자신의 가식만을 믿는다. 그렇다면 당신은 자신의 무엇을 믿는가? 오로지 돈만 다투면서 사람이 자신을 위하지 않으면 하늘과 땅의 별을 받는다? 그럼 "군자가 재물을 좋아하되, 도리를 지켜 얻는

다."는 도리를 아는가? 이는 절대 하나의 경지 문제가 아닌데, 왜냐하면 선인의 경고 속에 하나의 도리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일을 할 때 사람의 도리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늘이 사람에게 정해진 표준은 변치 않는 것이며, 사람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악마가 착해지기를 바라기보다는 멀리하는 것이 낫다. 중공 통치하의 사회 혼란을 앞에 놓고 당신은 여전히 어느 날 중공이 좋아지기를 바라고, 중공이 선량해지기를 바라는가? 생각해 보자. 중공이 집권한 몇 십 년 동안 그가 잘못을 고친 적이 있었는가? 매 한 차례는 모두 폭력적인 협박에 거짓말의 기만을 더해 중국인으로 하여금 한 번 또 한 번 실망하면서 마음속에 그런 한 줄기 희망을 품게 한 것이었다. 지금은 더욱 심해지고 더



2002년 6월 구이저우에서 발견된 '장자석' 단면에 '중국공산당망'이란 6개의 큰 글자가 나타나 '천멸중공(天滅中共)'이라는 하늘의 뜻을 알려주고 있다.

더욱 심해져 그렇지 않은 곳이 없다. 6·4의 폭력, 독 분유의 거짓말 등. 중공이 폭력과 거짓말 속에 파멸시킨 것은 모두 무고한 백성의 생명이었다. 이런 살인 악마가 좋아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호랑이한테 가죽을 벗기자고 의논하는 것과 같으며, 결국 자신을 망칠 수밖에 없다.

각자가 자신을 위태롭게 하기 보다는 '3퇴'하여 평안을 보전하는 것이 낫다. 오늘날 보험과 보건의품이 새롭게 나오고 있지만, 어느 것도 목숨을 지켜주지 못

한다. 돈을 아무리 써도 건강을 살 수 없고, 생명을 되돌릴 수 없다. 자신의 생명을 머지않아 훼손될 운명인 중공의 몸에 묶어 놓았으니 어떤 수단을 써도 자신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다. 중공의 당, 단, 대 탈퇴('3퇴') 성명에는 한 푼의 돈도 필요치 않고, 큰 보험에 드는 것이다.

과거의 '병법'에 삼십육계 줄행랑의 상책이 있다면 오늘은 삼십육계 '탈퇴'가 상책이다! 진심으로 선(善)을 향하며, "파룬따파 하오!"를 기억하자.